

“대승, 초기불교와 ‘단절’ 아닌 ‘계승’”

김성철 교수,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서 주장

육바라밀 · 불국토 · 법공 분석
“대승, 佛說 본질에 맞닿아”
‘대승비불설’ 정면으로 반박

“대승불교의 대표적 교리들은 그 근거나 취지가 초기불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는다. 초기불전에서 경전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사진〉는 11월 12일 동국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단절인가 계승인가’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간의 논쟁에서 근원적으로 맞서는 부분은 대승불설론(大乘佛設論)과 대승비불설(大乘非佛設)이다. 즉, 대승을 석가모니 부처가 설했는지 설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두 가지 학설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무착의 〈대승장엄경론〉에서 제시한 대승불설의 8가지 근거에 대해 분석한 김 교수는 “현대 문헌학적 연구에 비춰볼 때 대승불전은 소위 성문승의 초기불전보다 후대에 나타났다. 깨달음을 얻어 설한 자가 부처이라는 논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승불전을 만든 누군가도 모두 부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대승비불설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초기삼장은 불설 그대로인가’라는 기존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아쇼카왕의 비문을 보면 불전에서 선별한 7가지 법문을 신행지침으로 삼고 있고, 이들 불전들은 부처님의 직설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존하는 빠알리 니까야에서 해당 경전을 정확히 지목하기 어렵다”며 “대승도 부처의 직설이 아니지만 현존하는 니까야나 한역 아함경 역시 부처님의 교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김 교수는 초기불전이 대승불전에 비해 부처님의 직설에 가까움을 인정하고 대승불교의 교리가 불교이기 위해서는 근거를 초기불전에서 찾을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승불교의 대표 교리인 △육바라밀의 보살도 △타방불국토의 우주론 △반야계 경전의 법공사상을 초기불전에 비추어 분석했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대승불교는 초기불교를 계승하고 있다고 봤다.

육바라밀 보살도의 경우 “초기불전에서 보인 현생의 삶과 전생의 삶 중에서 보살로 살아간 전생의 삶을 닮고자 한 것”이라며 “대승불전의 보살도는 초기불전 〈본생담〉의 발전적 계승”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방불국토 사상은 삼천대천세계의 공간론과 성주괴공의 시간론의 논리적 귀결임을, 반야계 경전의 법공사상은 법(Dharma)의 방편성을 가르친 뗏목의 비유와 취지가 같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흔히 껍질을 벗겨도 본질이 나오지 않을 때 양파를 비유하지만, 불교의 경우는 다르다. 불교를 비유한 양파는 껍질들이 모두 양파의 육질(肉質)이자 본질(本質)”이라며 “2500년에 걸쳐 전승되고 재해석되고 재창출된 대승의 불전은 바로 이런 양파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대승불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관이 초기불전의 근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나의 인지와 정서를 불교적으로 향상시킨다면 불설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입시경쟁 속 죽어간 어린 생명 추모합니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1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활개 친 광화문 한복판에선 입시경쟁 속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스님 10여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현직 교사들은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학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천도의식을 진행했다.

참석한 스님들은 “어린 학생들이 입시경쟁 속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리 방향 모색

11월 30일 ‘공익적 가치평가 정책토론회’ 개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종교 · 문화유산적 기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차별화된 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환경위)는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2016 토론회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종단이 2014년 진행한 ‘국립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연구’를 토대로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포함된 대부분의 사찰림과 전통사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위 측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전통사찰 경내지 중에서도 사찰기능의 본체인 건조물지역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300m, 100m, 50m)에 지정됐기 때문에 종교적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며 “전통사찰지역의 거의 모든 문화재가 소속돼 있다. 가장 전형적인 사찰경관을 보여준단 점에서 문화유산가치가 집약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종교적 기능과 가치 뿐 아니라 문화유산적 가치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리방향 부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권역별 가치평가 후속연구를 시행, 향후 관리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 및 주제는 △가치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이영경 동국대 교수)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사찰지와 공원문화유산지구 경제적 가치평가(한상렬 경북대 교수)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 환경가치조사 및 관리방안(이병인 부산대 교수)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 생태가치조사 및 관리방안(김지석 부산대 강사) 등이다.

한편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 · 이용하고, 문화유산인 사찰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지정됐다.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독일어 수업을 들은 어르신들이 “Wunderbar!”를 외치고 있다.

어르신 독일어 삼매경 “Wunderbar!” 〈원더풀!〉

서울노인복지센터, 11월 15일 최초 원어민 독일어 수업

“wie heiβen sie?(비 하이쎈 지, ‘이름이 뭡니까’)”

교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독일어를 말했다. 곧 제각각 질문이 쏟아진다. 독일어를 향한 호기심이 봇물처럼 터지자 수업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1월 15일 독일 원어민이 지도하는 ‘독일어 기초반’ 수업 5강을 진행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1월 1일부터 매주 화 · 목요일 센터 3층 인생교실서 독일인 자원봉사자들이 지도하는 ‘독일어 기초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벌써 2회차다. 지난해 독일 국제워크캠프기구 ijgd(Intern ational Jugendgemeinschaftsdienste)와 협약을 맺은 후 독일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엔 켄과 제니가 파견돼 1차 독일어 기초반 수업을 진행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ijgd와 협업을 진행한 국내 유일이자 최초 복지관이다.

올해 파견된 독일 자원봉사자 루루(21)와 수진(20)은 지난 9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첫 인연을 맺고 식사권 나눔 등 활동을 해왔다.

수진(20)은 “교재를 직접 만들면서 독일어 강좌를 하는 경험은 처음이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과 스마트폰 · 이메일로 소통할 정도로 친해졌다”며 “센터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서 활약하고 싶다”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들과 함께 독일어를 공부하는 어르신들은 젊음을 되찾았단 반응이다.

정문교(81) 씨는 “치매 예방을 위해 외국어 공부에 도전했다. 젊은 시절 독일에 광부로 취직하기 위해 3년간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다시 공부하니 뇌가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의욕에 찬 어조로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측은 “어르신들의 독일어 실력이 나날이 늘어 중급반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2월 중 독일 자원봉사자들 및 수강생들과 함께 독일식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대불련 회장 선거, 30여년만에 경선 구도

대경지부 이경수 · 서울지부 장민호 후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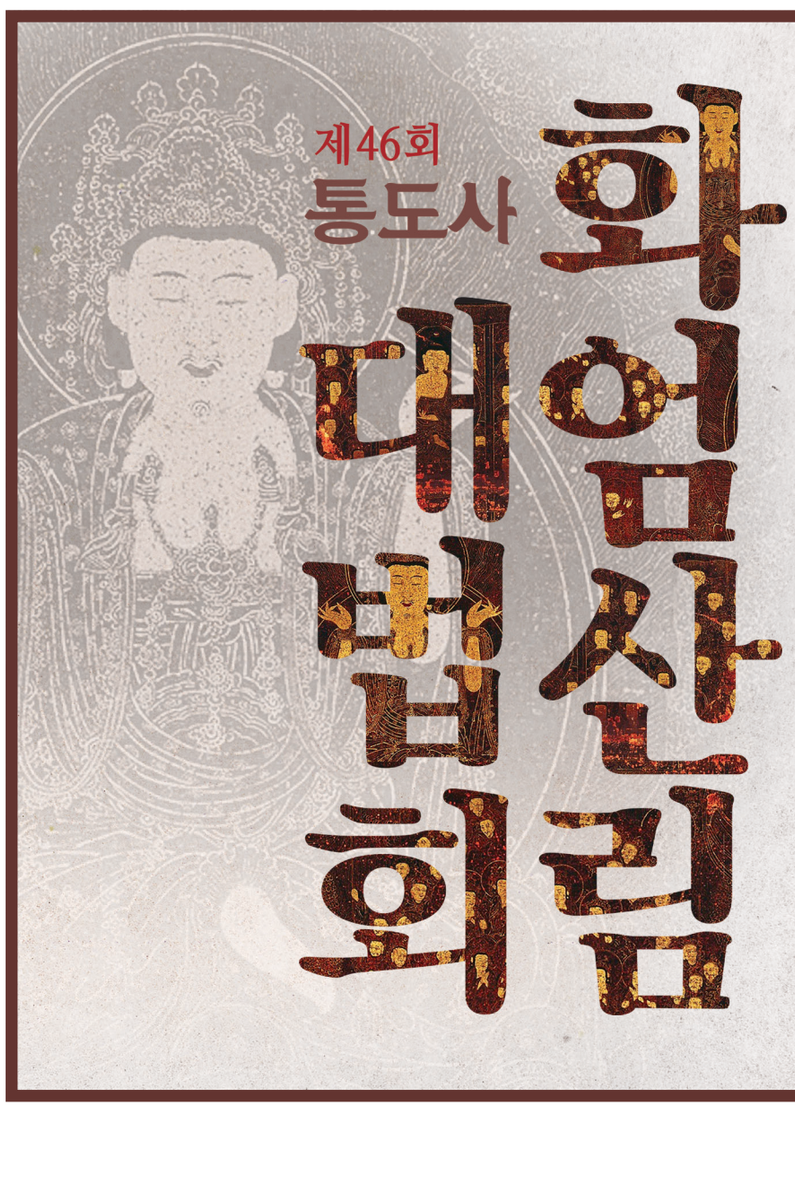
KBUF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55년차(2017년도) 중앙회장 선거가 30여년 만에 경선구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불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시리)는 최근 대불련 홈페이지에 제55년차 중앙회장 후보자를 공고했다. 선거에는 이경수 대경지부 금오공과대 지회원과 장민호 서울지부 숭실대지회장이 후보로 나섰다.

기호 1번 이 후보는 2012년 금오공과대 불교학생회에 입회해 지회장과 대경지부장을 역임했다. 대불련 템플스테이와 캠프에 두루 참여했으며, 중앙 문화부와 템플스테이 대학생 서포터즈단서도 활동했다. 올해에는 제5회 영부디스트캠프 공주 법등장을 맡았다. 기호 2번 장 후보는 2015년 숭실대 불교학생회에 입회해 지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올해 자유경제원이 실시한 이승만 시 공모전서 일명 ‘세로드립’으로 이승만 前 대통령을 풍자한 ‘우남찬가’를 써 내 입선하기도 했다.

이번 대불련 중앙회장 선거는 1980년대 이후 첫 경선이라는 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불련 측 확인결과 과거 사무실 이사 과정서 일부 자료가 소실돼 정확한 연도 파악은 어렵지만 대불련 출신 선배들이 “1970년대에 경선이 한 차례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불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서는 경선이 없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입재 2016 11.29.화
회향 12.28.수
장소 통도사 설법전

동참금 영가동참비 : 1위당 2만원
온산림 동참금 : 20만원
반산림 동참금 : 10만원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 모아 禪, 敎,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영축총림 통도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382-7182. 381-1442
팩스 055-382-7196

제46회 화엄산림대법회 법사 일정표

법문하실품	요일	양력	음력	법사
입재법문/화엄경 현담	화	11/29	11/1	방장스님 입재 법선스님
세주묘엄품	수	30	2	도일스님
여래현상품/보현삼매품	목	12/1	3	선지스님
세계성취품	금	2	4	종광스님
화장세계품	토	3	5	보광스님
비로자나품	일	4	6	자광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월	5	7	혜남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	화	6	8	수불스님
정행품/현수품	수	7	9	종석스님
승수미정상품/수미정상게찬품	목	8	10	신공스님
오전)월하스님 다례/십주품	금	9	11	월하스님 추모다례 현근스님
범행품/초발심공덕품	토	10	12	수진스님
명법품	일	11	13	각성스님
불승야마천궁품/야마천궁게찬품	월	12	14	중선스님
십행품/십무진장품	화	13	15	덕민스님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수	14	16	도문스님
십회향품 1-5	목	15	17	인환스님
십회향품 6-10	금	16	18 지장재일	시명스님
십지품	토	17	19	성우스님
십정품	일	18	20	현해스님
십정십통품/십인품	월	19	21	용학스님
아승지품/여래수량품	화	20	22	지현스님
제보살주처품/불사부의법품	수	21(동지)	23	법산스님
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공덕품	목	22	24 관음재일	무비스님
오전)벽안스님 다례 보현행품	금	23	25	벽안스님 추모다례 현진스님
여래출현품	토	24	26	보선스님
이세간품	일	25	27	월파스님
입법계품(휴사우바니까지)	월	26	28	정우스님
입법계품(비목구사-바산바연주야신)	화	27	29	심산스님
입법계품 회향법문	수	28	30	성파스님

※사안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